

■ 2023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3년 5월 22일(월) 14: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코로나 국면을 거치며 공연예술가들은 앞으로 무슨 공연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관객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며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공연장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연예술가들의 일터이자,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이자, 관객을 만나는 장소인 공연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술가와 관객에게 어떤 환경이 되어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공연예술 분야에 특성화된 300석 미만의 공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작년과 방향성은 같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초공연예술 전문 극장을 육성하고 다수의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유통경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올해는 민간 극장 차원에서 기획프로그램을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A형과 이에 더해 참여 예술가나 단체의 대관료 할인까지 책정하여 극장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 B형으로 나누어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5개 분야 총 110건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A형 87건, B형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6명으로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공연장의 운영 방향과 기획프로그램의 내용, 예산계획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공고문에 안내되었듯이 사업계획의 우수성(40%), 공연장 운영(40%), 사업의 기대효과(20%)를 기준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공연의 우수성과 예산계획의 적정성, 공연장 운영역량과 관객개발에 관한 계획과 노력, 기여도, B형의 경우 대관공연 시 대관료 50% 이상 할인 여부 등과 비수도권 특성화 가점(1점)도 검토하였습니다.

A형을 지원한 극장들을 살펴볼 때, 극장의 기획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기획공연이 작품제작을 지원하는 사업과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

다. 극장의 정체성, 운영 방향성과 관련 없이 작품 제작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단체는 선정권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수의 관객을 만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B형은 A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이에 더해 극장을 이용하는 예술가들의 대관료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두 유형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발견한 점이 있다면, 몇몇 극장들은 기존의 기획프로그램을 레퍼토리화하면서 신진예술가들의 진입로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올해 지원을 통해서 기획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기초공연예술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만한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예술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극장, 공간의 정체성에 맞는 단체들로 라인업을 구성한 극장,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극장, 작품 내용뿐만 아니라 공간의 접근성까지 고려하면서 배리어프리실천하는 극장의 계획들을 보면서 공연예술계가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A형보다 B형 지원 단체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극장을 대관하는 단체의 대관료를 할인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나 이를 간과한 지원서들이 많았습니다.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극장도 몇몇 있었습니다. 이 경우 참여 예술가들에게 비용 책정이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를 따져보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형에서 15단체, B형에서 7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술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극장들이 여럿이라는 점이 마음에 남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달라진 공연 환경 속에서 예술가와 관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공연장에 응원을 보냅니다.